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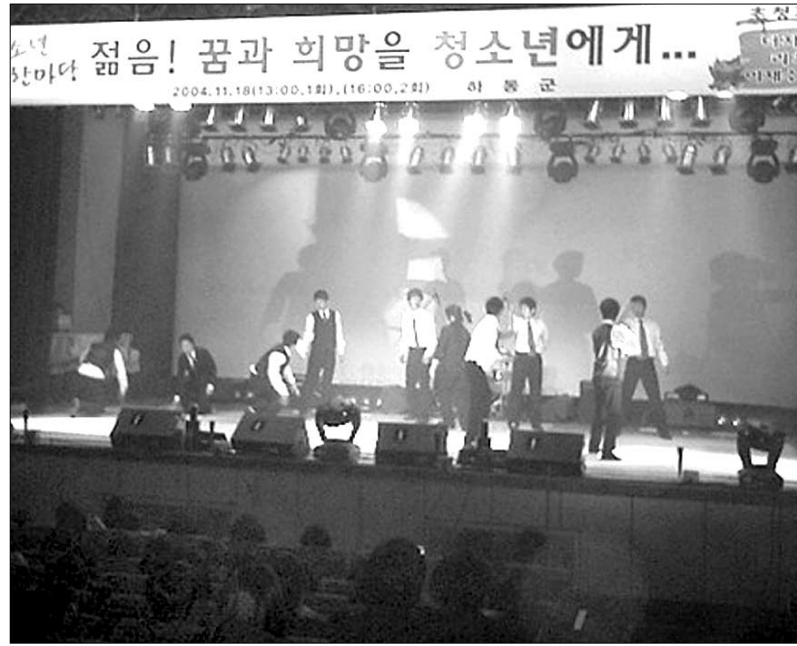
# “불교를 만나니 확 달라졌어요”

11월 18일 하동문화예술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는 하동 관내 15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들의 축제가 열렸다.

하동군청소년수련원(원장 효천) 주관으로 열린 '2004년 청소년어울림 한마당 큰잔치'에는 2,500여 명의 읍·면 소재지 학교 학생들이 모두 참석해 흥과 기를 발산했다. '젊음! 꿈과 희망을 청소년에게'라는 주제로 가수, 리치 등의 인기 가수 공연과 청소년들의 장기자랑, 경호무술시범, 재즈댄스 등 우수공연이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진 이날 공연은 청소년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은 이번이 두

번째로 하동군청소년수련원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행사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던 하동군청소년수련원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0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하고 제 13구 쌍계사 본·말사 연합회(회장 묘유)가 운영을 맡으면서부터다. 이후 전문가 투입을 통한 프로그램 특성화와 시설 개보수 및 생활관 증축 등 과감한 투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하동군청소년수련원은 산, 바다, 계곡이 어우러진 입지적 조건을 십분 활용한 프로그램들로 연 7천명에 그쳤던 수련인원을 3만 5천명으로 끌어올리는 기



“젊음! 꿈과 희망을 청소년에게”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에서 청소년들이 댄스 등 장기를 뽐내고 있다.

속박 400명, 아영 600명 등 동시 1,000명의 수용이 가능한 하동군청소년수련원은 이제 초·중·고등학교 위탁 수련활동뿐 아니라 기업체, 사회단체 연수 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새해 해맞이 행사 때에는 무료 숙박 혜택과 떡국을 무료 제공하고 있어 새해맞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운영에 활기를 되찾자 곧바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무료로 열기 시작했고 18일 열린 청소년어울림 한마당도 그 중의 하나다. 이밖에도 연 2회

하동군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청소년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다. 2만평의 대지위에 수영장, 아영장, 야외교육장, 생활관, 운동장 등을 갖춘 종합청소년수련시설인 하동군청소년수련원은 연 수련생 4만 명 시대를 향해 뛰고 있다.

김동준 사무국장은 “갯벌체험, 금오산 등반, 천체관측 등 특화 프로그램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학교나 기업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055)883-5393

글·사진=천미희 기자

## 위상 확인... 지역사회 발전 도모

###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동문의 밤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총동문회는 11월 27일 대구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대불련 대구경북 동문회의 밤'을 개최한다.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총동문회가 결성 이후 처음 추진하는 사업,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총동문회는 과거불퇴전의 신심으로 구도활동에 정진했던 기억들을 되살리고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한 동문들의 위상을 확인하며, 불교의 중추적 소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해 3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할 이날 행사에는 대불련 지회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수여하고,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총동문회의 2005년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또 2부에는 대불련 대경지부의 장기자랑, 모리터 국악교실의 공연, 기수별, 동문별 장기자랑 등 회합의 마당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총동문회 임원들

은 이날 행사를 위해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동문을 찾는다'는 플래카드를 대구 주요 사할 곳곳에 내 걸고 그동안 잊혀졌던 숨은 동문 찾기에 여념이 없다.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총동문회 임혜수 회장(대구 광병원 마취과장)은 “동문들의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침체기에 빠져 있는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재학생들의 지부결성과 활동을 돕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25일 출범한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총동문회는 △대불련 재학생 지부 및 지회 활동의 활성화 지원 △불교사회복지 활동 적극참여 △재가 수행활동의 모범적 전개 및 대중포교의 선구자적 역할 수행 △동문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유대 강화라는 주요사업목표아래 연간 세부추진일정을 세우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053)755-8318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대구 교직원 명상·요가 연수

대구 초·중·고 교사 100여명이 하루 종일 산사에 머물면서 명상과 요가를 익히고 체험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구지부(회장 신연섭·덕원중)가 11월 21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한 명상요가 연수를 개최한 것.

이번에는 제 1회 연수에 인원초과로 참석 못했던 교사들이 대거 동참해 사찰생활 안내부터 명상, 요가 강의와 실습, 사찰 문화재 관람까지 다양한 체험을 했다.

전통사찰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명상, 요가 수련을 통한 건강한 심신 수련, 교실에서 실시할 수 있는 명상 요가방법 등으로 진행된 연수는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배지선 기자

### 지혜정사, 낙태아 천도대법회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지혜정사(주지 지홍)가 낙태아 천도대법회를 49일간 봉행하고 11월 18일 회향했다.

10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봉행했던 낙태(유산)아 무보시 49일 천도대법회는 귀한 생명을 대한 자각없이 무심히 행해진 낙태(유산)로 인해 허공을 떠돌고 있는 생명을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지 지홍 스님의 원력으로 무료 봉행했다.

지홍 스님은 “태어는 46개의 인간연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이라며 낙태(유산)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 페인트 뿌려 대응전 등 훼손

대구 도심 사찰에서 훼손 사건이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수도암에 11월 4일 밤 10시경에 침입해 절 입구인 사천왕전에 흰 페인트를 대량으로 뿌리고 경내 대응전 단청에도 흰 페인트를 주입한 달걀을 던져 사천왕전 외부벽면전체와 내부 벽면 일부, 그리고 사천왕상이 완전 훼손되고, 대응전 단청일부와 외부벽면의 불화일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암은 일주일째 단청 복원작업을 하고 있지만 훼손정도가 심해 완전복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불랑배나 이교도의 소행으로 보고 탐문 수사를 펼치는 한편 절 주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 도심서 선의 참맛 느끼세요

#### 통도사 포교원 '영축선원' 개원

참선 실수를 위주로 하는 도심 포교원이 문을 열었다.

부산 연산동(대동 레미안 빌딩 401호)에 개원한 통도사포교원 영축선원(선원장 반산)은 11월 22일 오전 11시 통도사 방장 초우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불식 및 개원법회를 열고 '참선으로 가는 길'을 열어보이게 된다.

영축선원은 11월 29일 참선 실수를 위주로 하는 '선으로 가는 길' 기초반을, 30일에는 중급반을 개강한다. 기초반은 <초발심자경문> <금강경>과 참선실수로 참선의 기초를 다져주며 중급반은 <금강경> <육조단경>과 참선실수로 선의 깊은 뜻을 깨닫도록 6개월 동안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기초 교리 위주로 진행되는 '대승 불교' 강좌도 기초반과 중급반을 나눠 12월 1·2일 각각 개강한다.

반산 스님은 “경봉 스님이 주석하셨던 통도사 극락선원의 분위기를 도심에 옮겨와 일상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참선의 세계를 맛보게 하는 실증도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055)752-0108 천미희 기자

### 가야불교가 되살아 난다

#### 28일, 김해불교문화원 개원

가야불교의 역사를 되살리고 불교문화 관련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사)가야불교문화원이 문을 연다.

11월 28일 장유화상 칠불 후불 탕화 전안 및 문화원 개원법회를 열고 총 180평 규모의 가야불교문화원 시대를 개막한다. 김해지역 20만 불자들의 염원과 원력으로 건립된 가야불교문화원은 해로를 통해 인도불교가 최초로 전래했다는 가야불교의 역사를 되살리는 중심 공간으로 불교 문화 체험, 전시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영남 전역을 향한 적극적인 포교활동의 거점이 될 가야불교문화원은 향후 김해 사학자들과 더불어 가야불교사 복원에 앞장서고, 포교지를 겸한 소식지를 발행, 김해 지역 불교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이 밖에도 1층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한 인성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055)322-0088

천미희 기자

## 정진하는 불자로 거듭나길 ...

### 울산불교신도회·초기불전연구원 공동 법회



울산불교신도회(회장 손창집)와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은 11월 16일 울산 롯데호텔 2층 대연홀에서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초기불전연구원의 울산 이전을 기념하며 '불법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손창집 신도회장은 “가을 대법회를 계기로 울산 불자들이 모두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는 불자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대림 스님은 축사를 통해 “초기불전의 국역사업은 한국의 불자들이 신명을 다해 완수해야 할 소명”이라며 “신심깊은 울산 불자들이 더불어 초기불경 국역 사업의 원력을 이루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불전연구원 법사님 각목 스님은 “깨달음을 향한 대중의 서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 팔정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은 배플과 봉사하는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사성제와 팔정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수심법을 행하는 수행에 정진하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초기불전연구원 황경환 상임연구원의 초기불전연구원 연혁보고와 영축사 합창단의 찬불가, 서연 스님의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천미희 기자

# 감사의 말씀

조계종 원로이신 석주당 정일 대종사의 원로회의장을 범어사에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달려와 주신 중정 예하를 비롯한 원로 큰스님과 제방의 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예를 올리지 못함을 송구스러워하며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佛紀 2548년 11월 19日

### 석주당 정일대종사 추모제 일정

석주당 정일대종사 추모제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다 음 —

추모제	일시	장소	연락처	비고
초제	11월 20일(음 10월 9일) 오전 10시	범어사	051)508-3122	부산 금정구 청룡동
2제	11월 27일(음 10월 16일) 오전 10시	보문사	041)545-6531	충남 아산시 염치읍
3제	12월 4일(음 10월 23일) 오전 10시	진관사	02)359-8410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제	12월 11일(음 10월 30일) 오전 10시	개운사	02)926-4069	서울 성북구 안암동
5제	12월 18일(음 11월 7일) 오전 10시	칠보사	02)732-1424	서울 종로구 삼청동
6제	12월 25일(음 11월 14일) 오전 10시	지상사	033)521-5139	강원도 동해시 지가동
막제	1월 1일(음 11월 21일) 오전 10시	봉은사	02)545-1448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문의 : 범어사 ☎ 051)508-3122

조계종 원로회의장 장의위원회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 조계종 원로 석주당 정일대종사 문도 일동